

# 인기 영화나 드라마 제목을 상표로 출원

최근 들어 흥행에 성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친숙한 영화나 TV 드라마 제목을 상표로 등록하여 브랜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는 국내외 시장에서 브랜드가 가지는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 브랜드의 이미지를 손쉽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V 드라마 제목을 상표로 출원한 경우로는 한류열풍을 몰고 온 KBS의 드라마 '겨울연가'와 '풀하우스', '미안하다 사랑한다'와 MBC의 '대장금', SBS의 '파리의 연인' 등이 있다. 또한 현재 방송 중인 대표적인 드라마에도 상표로 출원하여 타인보다 먼저 인기 드라마 제목을 상표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 예로 현재 방영 중인 KBS의 '해신',



타인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화 제목을 상표로 확보해 둔 일본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불멸의 이순신', SBS의 '토지' 등을 들 수 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SBS의 개그 프로그램인 '웃찾사', KBS의 'VJ특공대', '연예가중계', '스펀지' 등의 다양한 오락,

교양 프로그램의 제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영화의 경우는 대부분 흥행에 성공한 영화 제목을 상표로 출원하고 있지만, 외국 영화의 경우는 영화 제작자가 타인이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화 방영과 함께 직접 상표권을 출원하여 영화 제목을 상표로 확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국 영화로는 강제규필름에서 상표로 출원한 '태극기 휘날리며'와 '여고괴담', '두사부일체', '주유소 습격사건' 등이 있다. 외국 영화로는 디즈니의 '인크레더블', '니모를 찾아서', 워너브라더스의 'MATRIX(매트릭스)', 더사울젠트의 'THE LORD OF THE RINGS THE RETURN OF THE KING(반지의 제왕)', 니바라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이 있다.

# 천주교회, 이미지 단일화 위해 그림표지 상표 등록

천주교는 등근원 안에 십자가를 형상화한 그림을 천주교를 알리는 표지로 확정하고,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상표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최근 열린 춘계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사

항을 재확인했다. 천주교 안내 그림표지 등록은 천주교회 이미지를 단일화하고 유사 표지의 난립을 막으면서 저작권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천주교 주교회의는 성당 앞에 내건 간판의 표기를 표준화, '천주교 00성당' 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 지역 성당 별로 '서울대교구 00동 천주교회, 천주교 00교회' 등으로 다양하게 이름을 내걸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대교구, 원주교구' 등의 교구 명칭은 생략하고 지역 명칭만 가운데 넣게 된다.

# 전남 장흥군 '정남진' 상표등록 논란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전남 장흥군의 '정남진' 관광지 개발사업이 상표권 문제로 다시 표류하고 있다.

군의회 의원이 '정남진'이란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바람에 장흥군이나 지역주민들이 '정남진'을 사용해 각종 사업을 벌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4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의회 A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정남진' 상표출원 등록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특허청에서 이를 심의중이다.

정남진 개발 사업은 '정동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장흥군이 광화문의 정남쪽인 관산면 신동리를 정남진으로 지정해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한 특수시책이다. 그러나 신동리와 직선거리로 6km 정도 떨어진 용산면 남포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정남진으로 주장하며 표석지까지 세우면서 사업이 초창기부



전라남도 장흥군의 남포(南浦)는 한반도의 정남향에 위치하여 정남진이라 불리며, 이 지역은 소설가 이청준과 영화감독 임권택이 손을 잡고 만든 영화 '축제'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터 난관에 부딪혔다.

장흥군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의뢰해 신동리를 정남진으로 공식 지정했지만 남포마을 주민들은 공식적인 측정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작년 1월 용산 출신인 A의원이 '정남진'의 한글도메인을 등록하고 특허청에 출원등록까지 해버려 정남진 개발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장흥군은 이에 따라 A의원에게 한글도메인과 상표권을 양도해 줄 것을 1년 전부터 요구했으나 A의원이 응하지 않아 최근 특허청에 출원등록 이의신청을 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의원의 신분으로 공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상표등록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체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특허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장흥군청이 상표등록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행정상 잘못이 있고 신동리가 정남진이라는 것도 정확한 측정 자료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A의원은 '장흥군청이 적절한 격식을 차려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표권을 넘길 생각이다'라며 '정남진 지정문제는 공식측정을 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금영수증 특허권 시비 붙었다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를 둘러싸고 특허권 시비가 발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벤처기업인 신보람(대표 이동호)은 지난 3월 3일 SK, LG칼텍스정유, 현대오일뱅크, KT 등 적립식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4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보람은 이들 회사에 대해 자사가 2003년 6월 등록한 '복권·소득공제 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이란 제목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보람의 특허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카드를 제시하면 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승인서버로 전송되고 승인서버는 거래승인번호와 복권번호를 생성해 가맹점으로 보내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는 것이다.

신보람측은 '소비자가 신분확인 수단으로 적립식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카드 발급사는 현금영수증 서버로 거래내역을 전송하는 대신 건당 2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 '특허권 침해 판결이 나면 신보람 측과 제휴를 하든지 사용료를 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보람 측은 특히 현금영수증 아이디어도 자신들이 2000년 국제청에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국제청 관계자는 '특허권이 등록되기 전부터 국제청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준비작업을 해왔다'고 전했다.

# 옥시, 유사 상표권 분쟁 항소심에서도 '승소'



세탁용 표백제 '옥시크린' 생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옥시가 유사상품인 '옥시화이트'의 생산 판매업체를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7일 세탁 표백제 '옥시크린'을 생산·판매하는 옥시가 유사상표인 '옥시화이트'를 생산해 온 대상(00168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7년부터 2002년 2월까지 얻은 이익 3억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상표는 이미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상표와 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용하는 상표인 '옥시'는 연결형 접두어로 사용되는 'OXY'의 한글 음역으로 직감된다거나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영어단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 된다'며 '옥시가 '산소'나 '산소 함유'라는 뜻의 영어접두어로 화학제품 등에서 이미 제품의 성분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 면 / 인 / 내**

- 2 인기 영화나 드라마 제목을 상표로 출원
- 3 특허 서비스 고객 중심으로 바꾼다
- 4 차세대 광 PCB 세계 시장, '한국이 주도'
- 5 특허청, WIPO와 함께 지재권 콘텐츠 공동개발
- 6 바다로부터 의약강국 꿈꾼다
- 9 인플 FOCUS·넥클린 임영일 대표
- 10 파주 김산초등학교 발명공작교실
- 13 유럽연합, 소프트웨어 특허화 법안 승인
- 14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 1천개 육성